

# 西漢의 和親 역사와 王昭君 흉노 출가의 背景

유태규\*

## <目 次>

1. 머리말
2. 西漢 시기의 和親 역사
3. 昭君의 흉노 출가 배경
  - 1) 元帝의 和親 정책
  - 2) 昭君의 入宮과 출가 과정
3. 황후와 畫工의 음모설
4. 맺는 말

## 1. 머리말

王昭君<sup>1)</sup>은 BC33년 그녀가 흉노의 呼韓邪單于에게 출가한 이래 이천 여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가장 추앙받는 女傑 중의 한 명이다.

昭君은 西施, 貂蟬, 楊貴妃와 더불어 흔히 중국의 고대 사대미녀에 속한다. 사대미녀 라는 칭호는 남성 권위주의와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이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칭 속에는 단지 미모와 성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남성의 욕망과 심미관이 짙게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사대미녀라는 기존의 개념과 통칭으로 이 인물들을 보는 시각으로는 이 인물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데 편견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昭君 자신의 입장과 당시의 漢匈이

\* 한국교통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1) 이하 昭君이라 간칭 함.

처한 정치적 관점에서 昭君 흉노 出嫁 고사를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昭君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史書인 《漢書》《元帝紀》와 《匈奴傳》, 그리고 《後漢書》에 등장하고 있다. 전자의 두 기록은 정통적인 사관에 따라 흉노 呼韓邪單于가 元帝를 알현하고 漢에 服屬하기를 원하자 이에 대한 답례로 昭君을 下賜했다라고 간략하게 記述하고 있다. 후자의 기록은 전자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작자의 개인적인 관점을 추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元帝가 흉노의 呼韓邪單于에게 궁녀 다섯 명을 下賜하도록 명령하자, 昭君이 스스로 흉노로 떠나겠다고 自請하였다는 것이다. 전자의 역사의 기록이 지나치게 간략하기 때문에 후대 역사서의 저자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南北朝 시대에 지어진 《西京雜記》는 昭君이 입궁한 후에 수년이 지나도록 元帝를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이는 畫工 모연수가 고의로 그녀의 畫像을 毀畫했기 때문이라는 설을 최초로 주장하고 있다.<sup>2)</sup> 《西京雜記》는 고대 西漢 사회에 관한 일종의 견문록으로 특히 궁중에 관한 일화를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昭君 고사의 전기성을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후대의 무수히 많은 詩文, 소설, 희곡, 민간전설, 俗曲도 대부분 《西京雜記》로부터 영향을 받아 “畫工毀畫”의 설을 그대로 수용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西京雜記》에 따르면 元帝의 명을 받아 화공 모연수가 昭君의 畫像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모든 궁녀가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지만, 오직 昭君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무엇에 근거하였기에 사실처럼 구전되었고, 또 후대의 모든 기록들은 이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중국인들은 어찌하여 이 설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 견해에 대하여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추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昭君의 미모에 두려움을 갖게 된 황후 자신은 이미 나이도 많고, 매력도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권태를 느끼는 황제가 마음만 먹으면 후궁 중에서 청순하고, 매력적인 후궁을 언제든 지 곁에 둘 수 있고, 비빈으로 삼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2) 《西京雜記》卷第二 葛洪 中華書局“元帝后宮既多，不得常見，乃使畫工圖形，案圖召幸之，諸宮人皆賂畫工多者十萬，少者亦不減五萬，獨王嬙不肯，遂不得見。”

심지어는 황후를 대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후궁 중에서 미모가 뛰어난 궁녀는 항상 황후로부터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제거해야 할 상대이다. 이런 점에서 황후와 畫工은 상호 자신의 사적인 욕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략적인 암거래를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영문을 모르는 궁녀들은 영원히 황제 곁에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설사 궁녀가 황후와 畫工의 암묵적인 공조 하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간파하더라도 매수할 재물이 없거나 성격이 강직하여 불의를 용납할 수 없다면 영원히 황제의 聖恩을 받을 수 없다.

《西京雜記》에서는 황제가 畫工에게 명을 내려 후궁의 畫像을 그려 바치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기록의 진실 여부를 고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고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가설을 주장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즉, 모연수가 고의로 昭君의 용모를 추하게 그렸다는 설은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昭君을 황제의 안중으로부터 영구히 차단하기 위한 황후의 교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공이라는 미관말직의 신분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조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뒤를 봐주는 권력층의 비호 없이 독단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昭君 흉노 출가 고사를 재해석하여 昭君의 흉노 출가가 이룩해 낸 역사적 성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西漢 시기의 和親 역사

기원 전 209년, 흉노의 冒頓單于는 부친을 살해하고, 스스로 單于가 된 이후, 나날이 세력이 강성해지고, 북방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다. 이에 고무되어 기원 전 201년, 冒頓單于는 40만 대군을 인솔하고, 남하하여 漢 高祖 劉邦을 위협하고, 또 고의로 패주하는 계책을 써서 유방의 군사가 추격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를 추격하던 유방과 선두부대가 平城의 白登山<sup>3)</sup>에 이르렀을 때, 흉노의 꾀에 빠져 7일

3) 현재 山西省 大同市 東北에 위치한 馬鋪山 지역

동안 완벽하게 포위당하여 거의 괴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白登之圍” 사건이다. 사면초가에 처한 유방은 책사 陳平의 계책대로 금은보화를 준비하여 冒頓單于의 황후를 매수하였다. 매수당한 황후가 單于에게 漢 황제를 살려주는 것이 흉노의 국운에 유익하다고 진언하자 單于가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철군을 하였다. 冒頓單于가 황후의 건의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유방은 포위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sup>4)</sup>

“白登之圍” 사건은 유방에게 무력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흉노를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시켜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白登之圍” 사건에 고무된 흉노가 자주 변경을 넘어 약탈을 감행하자, 유방이 婁敬을 소환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였다.

당시 유방의 중요한 책사였던 婁敬<sup>5)</sup>은 전쟁의 회군을 막기 위해 유방에게 長公主를 單于에게 출가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폐하께서 만일 진실로 장공주를 목돌에게 시집보내고, 후한 예물을 하사한다면 그는 한나라에서 보낸 공주와 후한 예물을 보고, 비록 오랑캐이지만 공주를 호모하여 閼氏<sup>6)</sup>로 삼고, 만일 아들을 낳으면 태자로 삼아 대를 계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라의 후한 예물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에는 언제나 남아돌지만 그들에게는 진기한 물건을 폐하께서 자주 보내 주면서 그때마다 辯士를 파견하여 예절을 가르치면 목돌은 살아서는 폐하의 사위가 되고, 죽으면 폐하의 외손이 單于가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외손자가 감히 외조부와 대등한 예를 취한다는 것을 들어 본적이 있습

4) 《二十五史》《前漢書》〈匈奴傳〉卷九四 上 p.384 “高帝自將兵往擊之。會冬大寒雨雪，卒之墮指者十二三，于是冒頓陽敗走，誘漢兵。漢兵遂擊冒頓，冒頓匿其精兵，見其羸弱，于是漢悉兵三十萬，北逐之。高帝先至平城，步兵未盡到，冒頓縱精兵三十餘萬騎圍高帝于白登，七日，漢兵中外不得相救餉。匈奴騎，其西方盡白，東方盡騶，北方盡驪，南方盡騂馬。高帝乃使使問厚遺閼氏，閼氏乃謂冒頓曰：‘兩主不相困。今得漢地，單于終非能居之。且漢主有神，單于察之。’冒頓與韓信將王黃·趙利期，而兵久不來，疑其與漢有謀，亦取閼氏之言，乃開圍一角。于是高皇帝令士皆持滿傳矢外鄉，從解角直出，得與大軍合，而冒頓遂引兵去。漢亦引兵罷，使劉敬結和親之約”

5) 漢初 齊國 虛人(今山東省濟南市長清縣)으로 漢初의 政策 制定 및 西漢 政權의 安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建信侯에 봉해지고, 劉씨 성을 하사받아 一名, 劉敬으로 불림.

6) 匈奴 單于의 황후에 대한 칭호.

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군대를 파견하여 전쟁하지 않고도 그들을 서서히 신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장공주를 보낼 수 없어 종실이나 후궁의 딸을 선발하여 공주라고 속여 보내신다면 그도 눈치를 채고, 그녀를 귀하게 여겨 가까이 하지 않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sup>7)</sup>

류경은 劉邦에게 장녀인 魯元 공주를 冒頓에게 출가시키면 흉노와 직접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그들을 서서히 신하로 만들 수 있다”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건의하였다. 그리고 황제의 공주를 직접 출가시키는 것이 어려워 종실이나 후궁의 여인을 대리로 출가시킨다면 오히려 화근이 되고, 무익할 것이라고 과감히 직언을 하였다. 그러나 류경의 말이 아무리 이치가 타당하고, 그럴듯한 명분이 있더라도 황제의 입장에서 자신의 혈육을 오랑캐로 여기는 흉노에 직접 출가시킨다는 것은 너무 굴욕적이기 때문에 쉽게 허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황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고, 전략적으로 필요하더라도 금지옥엽 같은 공주를 이역만리의 사지로 보낸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결국 류경의 의도를 알게 된 呂太后가 주야로 울며 “소첩의 소생은 태자와 딸 하나뿐인데, 어찌 그 아이를 흉노에 내던지려 하십니까!” 하면서 결사반대하자 長公主의 흉노 출가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예상치 못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유방은 부득이 은밀하게 長公主 대신 家人<sup>8)</sup>을 간택하여 冒頓單于에게 시집보내고, 상당량의 혼수품을 전달하한 뒤, 유경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和親을 체결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漢과 匈奴간에 처음 맺어진 和親정책의 시작이 되었다.<sup>9)</sup>

당시의 和親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漢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물품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둘째, 매년 한 두 명의 공주를 출가시키기 때문에 흉노는 더

7) 《二十五史》《史記》卷99〈劉敬叔孫通列傳〉上海古籍出版社 p.303 “陛下誠能以適長公主妻之，厚奉遺之，彼知漢適女送厚，蠻夷必慕以爲閼氏，生子必爲太子，代單于。何者？貪漢重幣。陛下以歲時得所余彼所鮮數問遺，因使辯士風諭以禮節。冒頓在，固爲子婿；死，外孫爲單于豈嘗聞外孫敢与大父抗禮者哉？兵可无戰以漸臣也。若陛下不能遣長公主而令宗室及後宮詐稱彼亦不肯貴近無益也”

8) 궁녀들 중 관직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한 別稱

9) 《史記》卷99〈劉敬叔孫通列傳〉p.303 “高帝曰：‘善。’欲遣長公主。呂后日夜泣。曰：‘妾唯太子，一女，柰何棄之匈奴！’上竟不能遣長公主，而取家人子名爲長公主，妻單于。使劉敬往結和親約。”

이상 漢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후, 和親 정책은 漢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의 기본 국책으로 자리 잡았고, 武帝 초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십여 명에 이르는 공주와 종실의 여인들이 흉노에게 출가하였다.<sup>10)</sup>

西漢 전기의 和親은 주로 漢 정부가 흉노에게 여인과 재물을 일방적으로 공납하고, 변경 시장을 개설 하였는데, 이것은 굴욕적으로 이루어 낸 講和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이러한 굴욕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漢이 和親정책을 실행한 것은 “漢弱匈強”이라는 국력의 쇠퇴로 말미암은 것이다.<sup>11)</sup> 유방을 계승한 한초의 통치자들은 秦 末期의 잦은 전란으로 인한 혼란과 경계의 쇠퇴로 인한 종합적인 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與民休養”과 “無爲而治”의 통치로 사회발전을 추구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인 “和親” 정책은 전쟁에 지친 백성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고, 당시 사회 정세의 요구에 따라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和親 정책의 추진은 흉노를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漢의 변경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漢과 흉노 입장에서 和親은 상호의 이해관계가 부합하기 때문에 양국 간에 지켜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漢 武帝 劉徹에 이르러 和親정책은 다시 폐기되는 운명에 처하고, 양국 간에는 전쟁이 빈발하게 된다. 왜냐하면 혈기왕성한 젊은 武帝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점차 완비하였기 때문에 漢의 일방적인 조공을 통한 굴욕적인 和親정책에 대해 대단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武帝는 더 이상 和親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흉노에 대해 세 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벌여 흉노를 漠北<sup>12)</sup> 지역으로 축출하였다.

武帝는 일시 흉노를 축출하여 약 20년 간 변경의 안정을 도모하였지만,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흉노가 武帝의 공격으로 일시 漠北 이북으로 축출되었

10) 漢 高祖에서 武帝 통치 시기까지 약 12명의 공주와 종실 여인이 흉노 單于에게 출가하였음.

11) 《王昭君故事傳承與嬗變》p.11 “匈奴在秦時已有‘控弦之士30余萬’., 到漢初則擁有精銳之師40多萬, 國力非常強盛. 其勢力已深入到山西, 河北的北部, 并控制了東到遼河, 西逾葱嶺, 南越長城, 北抵貝加爾湖的遼闊地區.”

12) 中國의 北方에 위치한 沙漠으로 戈壁 以北의 광활한 지역에 분포한 현재의 외몽고를 가리킴

으나, 그들은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언제나 쉽게 다시 결집하여, 武帝의 강력한 적대 세력으로 세력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호전적인 武帝가 평생 동안 흉노 정벌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국 흉노 토벌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다.

武帝 이후, 제위를 계승한 宣帝 시대에 흉노에는 내란이 발생하여 5개의 單于가 병립하면서 상호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고 전쟁이 지속되었다. 기원 전 54년, 흉노의 呼韓邪單于가 그의 형 郅支單于에게 대패 당한 뒤, 장성 부근의 光祿塞<sup>13)</sup>까지 남하한 뒤 친히 宣帝를 알현하였다. 呼韓邪單于가 최초로 중원의 황제에게 알현을 청하자, 宣帝도 長安 교외까지 나가 친히 그를 영접하고 성대한 연회를 제공하였다. 성대한 환대에 고무된 呼韓邪單于是 西漢 정부와 우호적인 一家의 관계를 맺고, 상호 기만과 공격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였다. 呼韓邪單于가 長安에서 약 한 달여를 머무른 뒤, 귀로에 오르자 宣帝가 특별히 두 명의 장군에게 “漠南(현재 내몽고)” 지역까지 호송하도록 하였다.

당시 흉노에 식량이 절대 부족하였기 때문에 宣帝가 삼만 사천석의 식량을 원조하자 呼韓邪單于是 크게 감복하였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역의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漢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 3. 昭君의 흉노 출가 배경

#### 1) 元帝의 和親 정책

宣帝를 이어 즉위한 元帝 劉奭은 현명한 군주였기 때문에 흉노와의 소모전으로 더 이상 백성들을 피폐하게 하고,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흉노의 呼韓邪單于 역시 무모한 부족 간의 내전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

13) “光祿塞”이란 西漢 武帝 太初 3년(BC102)에 光祿勛(官号)이었던 徐自爲를 五原郡에 파견하여 五原塞 외부에 축조한 長城으로, 그 유적은 현재 내몽고 중서부의 固陽縣과 烏拉特中旗 및 烏拉特后旗 境內에 분포되어 있다. 光祿勛이 축조하였기 때문에 光祿塞, 혹은 光祿城이라고 칭함.

하여 元帝의 협조가 절실하였다. 그래서 상호간에 정권의 안정과 민생의 회복을 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和戰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元帝 永光 元年(B.C 43년)에 漢의 車騎都尉 韓昌과 光祿大夫 張猛은 흉노 呼韓邪單于와 맹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부터 漢과 匈奴는 합하여 한 집안이 되었으니, 대대로 상호 속이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 또 몰래 훔치는 일이 발생하면 서로 통보하여 절도한 자는 처벌하고, 훔친 물건은 보상한다. 침략이 있으면 군대를 동원하여 서로 돕는다. 漢과 흉노 중에 감히 먼저 맹약을 위반한다면 하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니, 이에 자손대대로 모두 맹약을 따르도록 한다. 韓昌과 張猛, 그리고 선우와 그의 대신들은 함께 諾水の 東山에 올라 백마를 쫓고, 선우는 보검과 황금 수저를 술에 집어넣고 휘저어 老上單于에게 격파된 月氏王의 해골로 만든 술잔에 담아 함께 마시고 피로써 맹약하였다.”<sup>14)</sup>

漢은 북방의 강성한 흉노가 수시로 변경을 넘어 약탈을 자행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고, 흉노는 거친 자연환경으로 인해 물자가 부족하고, 또한 장기간의 내전으로 인해 부족 간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당시 呼韓邪單于는 흉노의 내란을 잘 극복하고, 점차 국력을 회복하여 “漠北”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부족과 형제간에 지속된 내전을 평정한 呼韓邪單于는 국가의 재건을 위하여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원전 33년(竟寧 元年), 세 번째로 장안에 입조하여 漢 元帝에게 복속할 것을 맹약하고, 황실의 사위가 되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呼韓邪單于는 양국 간의 전쟁 중지에 대한 성의의 표시로 자신의 아들을 장안에 인질로 파견하기로 약속하였다.

呼韓邪單于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황실의 사위가 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元帝는 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황실에는 單于에게 출가시킬만한 적

14) 《二十五史》《前漢書》卷·九十四下〈匈奴傳〉第六十四下 上海古籍出版社 p.352 “昌、猛卽與爲盟約曰‘自今以來，漢與匈奴合爲一家，世世毋得相詐相攻。有竊盜者，相報，行其誅，償其物；有寇，發兵相助。漢與匈奴敢先背約者，受天不祥。令其世世子孫盡如盟。昌、猛與單于及大臣俱登匈奴諾水東山，刑白馬，單于以徑路刀金留犁燒酒，以老上單于所破月氏王頭爲飲器者共飲血盟。”

당한 공주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또 만일 누군가를 呼韓邪單于에게 출가시킨다면 오히려 元帝의 입장이 난처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흉노는 사막이나 초원에서 종일 모래바람을 맞거나 강렬한 햇빛 속에서 거친 생활을 하고, 또 말이나 양을 방목하다가 바로 이주를 하거나 전쟁을 치루면서 잦은 이동을 해야 하는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漢 왕실의 공주는 모두 극도의 호강 속에 성장하였으며, 또 최고 권력층의 금지옥엽 같은 혈육을 흉노에게 출가시킨다는 것은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할 만큼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漢 고조 유방도 본래 자신의 공주를 單于에게 출가시키려고 하다가 황후인 呂侯가 친딸을 보낼 수는 없다고 읍소하여 결국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죄를 지은 문중의 공주를 자신의 딸로 가장하여 출가를 시킨 것이다. 이후, 漢에서는 공주를 출가시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통의 공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劉氏 왕실의 宗室 여인에게 공주라는 작호를 하사하여 출가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다.

呼韓邪單于가 자청하여 사위가 되기를 청하였고, 흉노의 입장에서도 줄곧 어떠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元帝는 종전처럼 황실 여인을 呼韓邪單于에게 출가시킬 계획을 하고, 자신의 딸인 平都공주<sup>15)</sup>를 선발하였다. 元帝는 본래 흉노와 통혼할 계획이었지만, 조정의 주전파들이 흉노와의 和親을 반대하여 平都 공주의 출가를 꾀방하였다. 주전파들은 흉노들이 오곡을 먹지 않고, 오직 소와 양고기만을 먹는다고 비난하자, 나이 어린 平都 공주는 분을 참지 못하고 고의로 발광하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결국 그녀가 완강히 흉노에게 출가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元帝도 공주 출가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 2) 昭君의 入宮과 匈노 출가 과정

史書의 기록에 따르면 王昭君은 宣帝 甘露 3년(BC52), 南郡의 秭歸<sup>16)</sup>에서

15) 平都공주는 元帝와 황후인 王政君의 친 소생이 아니라 후궁이었던 傅氏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이다. 傅氏는 원래 上官太后를 시종드는 궁녀였지만, 후에 元帝의 聖恩을 받고, 妃嬪으로 승격하여 元帝의 지대한 총애를 받았다.

출생하였으며, 황제의 소집령으로 인해 16세의 어린 나이에 궁녀로 선발되어 입궁하였다.<sup>17)</sup> 그리고 元帝 建昭 元年(BC38)에 전국의 미녀를 선발하여 후궁으로 보충토록 영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昭君도 이 시기에 입궁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昭君이 출생하고 성장한 시기는 대부분 西漢 시기에 속하고 있어, 그녀와 관련된 기록은 班固가 지은 《前漢書》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班固의 기록은 昭君의 생애와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편찬된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 그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입궁하고 출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뒤이어 南朝 劉宋 시기에 范曄이 지은 《後漢書》에 昭君과 관련된 기록이 《前漢書》에 비해 비교적 분량도 많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양대 史書의 昭君 관련 기록이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지만, 두 史書 사이에 너무 큰 차이로 인하여 昭君 고사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前漢書》와 《後漢書》에 昭君의 출신과 入宮 및 출가 과정에 대해 아주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

元帝는 후궁 중에서 良家の 자제로서, 이름은 王嬙이며 字가 昭君인 궁녀를 單于에게 하사하였다.<sup>18)</sup>

昭君은 字가 嬙이며 南郡 사람이다. 당초 元帝 치세(BC48~BC33) 시기에 良家子の 신분으로 선발되어 후궁으로 입궁하였다.<sup>19)</sup>

상기 두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昭君이 良家の 자제라는 사실로 입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良家の 자제란 어떤 정도의 신분과 계급을

16) 지금의 湖北 興山縣 일대를 가리키는데, 이곳에는 “昭君村”、“昭君溪” 등과 같이 昭君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현존하고 있다.

17) 百度 王昭君 “漢元帝建昭元年，下詔征集天下美女補充後宮，當年的王昭君年方二八，正是青春迷人的年齡，自然選選入了宮中。”

18) 《前漢書》卷·九十四下〈匈奴傳〉第六十四下 pp.352-353 “元帝以後宮良家子王嬙字昭君賜單于。”

19) 《後漢書》卷一百十九〈南匈奴傳〉第七十九 p.299 “昭君字嬙，南郡人也。初，元帝時，以良家子選入掖庭”

의미하는 것인가? 후궁의 모든 궁녀는 평소 지정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일단 황제의 총애를 얻게 된다면 신분이 妃嬪으로 파격적인 수직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선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良家子”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史記·李將軍列傳》에도 “良家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文帝 14년(BC166)에 흉노가 대거 군사를 동원하여 蕭關으로 침입하자, 李廣이 “良家子”의 신분으로 참전하여 흉노를 공격하였는데, 그가 騎馬와 활쏘기에 뛰어나 많은 적들을 斬殺하였기 때문에 中郎將에 임명되었다. [索隱] 如淳이 말하기를: (良家子란) 의원, 巫人, 상인, 기술자가 아니다.”<sup>20)</sup>

索隱에 따르면 당시 “良家子”의 신분은 의원과 무속인, 그리고 상인과 기술자에 비해 더 높은 사회적 대우와 인정을 받는 집안의 자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前漢書》와 《後漢書》의 “良家子”란 청빈한 농민 집안의 자제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유추해보면 “良家子”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자제로, 즉, 王昭君이 貧農 출신의 농민 딸이라는 신분이라는 사실이다. 고대사회에서 농부의 자식이란 시골에 파묻혀 대대로 농사를 짓는 삶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했지만, 王昭君은 빼어난 용모 덕에 16세가 되던 해에 궁녀로 선발되어 皇宮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昭君의 생졸 연대에 대해 史書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관련 문헌이 부족하다. 그러나 翦伯贊의 《王昭君年譜》에 따르면 그녀는 한 宣帝 甘露 원년(BC53)에 출생하여 後漢 光武帝 建武 6년(AD30)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대략 84세의 장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나이로는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昭君이 16세의 나이에 입궁한 이후, 황제의 총애를 위해 “後宮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元帝 竟寧 원년(BC33) 21세의 나이에 흉

20) 《史記》〈李將軍列傳〉第四十九 p.317 “孝文帝十四年，匈奴大人蕭關，廣以良家子從軍擊胡，用善騎射，殺首虜多，爲漢中郎。(索隱)如淳云醫、巫、商賈、百工之子女。”

노의 單于를 따라서 출궁한 것이다. 그녀는 용모와 자질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약 6년여의 세월 동안 후궁 중에 유쾌되어 권력의 견제와 경쟁자인 궁녀들 간의 암투로 인하여 자신의 세속적인 꿈을 의연하게 포기하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흉노 출가라는 제2의 인생을 선택하였다.

### 3) 황후와 畫工의 음모설

전통적인 昭君出塞 고사는 입궁한 昭君이 황제의 聖恩을 받지 못하게 되자 漢과 흉노간의 평화와 우호 증진을 위해 자청해서 흉노 출가를 요구했다는 설과 呼韓邪單于가 元帝에게 알현을 청하고 服屬을 청하자 그에게 답례로 下賜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21)</sup>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 황후와 모연수 간의 음모에 의해 昭君이 황제의 주변에서 강제로 차단당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비전통적인 견해에 의거하면 昭君 출가 배경의 핵심은 기존 史書의 견해와 달리 “昭君이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아 이에 비애를 느껴 스스로 呼韓邪單于에게 출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2)</sup>

昭君은 황궁에 입궁한 후, 수려한 용모와 자태에도 불구하고 운이 없어 황제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였으니, 후궁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대략 삼천여 명 정도 되는 후궁의 미인 집단 중에서 자신의 능력에 의해

21) 1. 《前漢書》〈元帝紀〉“竟寧元年春正月，匈奴摩韓邪單于來朝。……願保塞傳之無窮，邊垂長無兵革之事。其改元爲竟寧，賜單于待詔掖庭王牆爲閼氏”

2. 《前漢書》〈匈奴傳〉“竟寧元年，單于復入朝，禮賜如初，加衣服錦帛絮，皆倍於黃龍時。單于自言願婚漢氏以自親。元帝以後宮良家子王牆字昭君賜單于”

3. 《後漢書》〈南匈奴傳〉“時呼韓邪來朝，帝勅以宮女五人賜之。昭君入宮數歲，不得見御，積悲怨，乃請掖庭令求行”

22) sina.com 〈王昭君歷史之迷〉 梁潮文 2012. 03.22 “毛延壽其人，及其相關的故事均爲杜撰，而且一定是杜撰，因爲其不合理。原因在，宮女入宮，其身份、情況，決非儘靠一個人來決定的，在宮里有各級管理太監、各宮苑、部門司事，王昭君可以被一個人、一個部門隱瞞，但她絕對不可能被宮里所有執事全部隱瞞。因此，儘靠一個畫師，就能讓王昭君徹底埋沒，這幾乎是不可能的。這個故事的最大問題，就是把一個複雜的宮廷陰謀，完全附托到一個人的身上，這是不論如何，也絕大做不到的。如果她果然貌若天仙，而因受后宮妬忌而被刻意隱瞞的話，那磨不可否認，參與此事的一定決非一人，而且必定有在後宮有權勢者參與皇后、寵妃、或者大太監頭子。——而按照傳說，王昭君是自己自願獻書，和親匈奴的。”

직접 황제의 聖恩을 받는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후궁들이 거주하는 六宮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전적인 책임은 황후에게 있다는 점이다. 모든 후궁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황후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으며, 주요 동향과 특이 상황은 항상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元帝의 총애가 깊지 않았던 皇后인 王政君의 나이는 40세이고, 昭君의 나이는 젊음과 미모가 절정에 달하는 눈부신 25세의 후궁이었다. 때문에 昭君이 황제를 만날 수 없었던 불운함은 황후로부터 비롯된 질투와 견제 때문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이며 타당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황후는 昭君을 보자마자 질투가 끓어올라 고의로 昭君을 황제의 주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황후가 봐도 질투가 일만큼 대단한 자색을 구비한 미녀가 일단 황제의 총애를 얻게 된다면, 황후 자신은 바로 황제의 눈에서 벗어나 자칫 후궁에 유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투심이 끓어 오르는 황후는 황제가 절대로 昭君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흉계를 꾸미게 되었던 것이다. 즉, 그녀는 당시 전문적으로 후궁의 肖像을 그려 元帝에게 바치는 궁중 화가 모연수를 거액으로 매수하고, 그에게 昭君의 肖像을 그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견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일개 궁중의 畫工이 아무런 권력의 비호 없이 자의로 궁녀의 肖像을 毀畫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과 멸족을 당하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단 畫工의 입장에서 감히 실행하기 어려운 대단한 모험이다. 그러나 황후는 장차 자신의 최대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상대를 교묘하게 견제하고 제거해야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수하를 적절히 이용하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황후에게 매수당한 畫工이 그린 昭君의 모습은 실제 인물에 비해 훨씬 추하게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눈 밑에 큰 점까지 그려 넣어 전혀 다른 인물로 둔갑시켰다. 이후, 肖像을 황제에게 전달할 기회를 엿보던 황후는 결국 肖像을 元帝의 면전에서 전달하여 심사하여 주기를 요청하였고, 결국 실제 인물 昭君은 元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마음속의 억울함을 하소연 할 수 없었던 昭君에게 뜻하지 않은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다. 본래 元帝는 平都공주를 單于에게 출가시키려고 하였지만, 공주가 절대로 흉노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식이 呼韓邪單于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呼韓邪單于是 사리를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元帝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간파하고, 元帝에게 자신이 장가들 여인의 신분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진언하고, 이번 和親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漢匈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간의 우호협력으로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되고, 양국의 사적이 안정되게 하는 것임을 밝혔다. 그래서 呼韓邪單于是 자신이 장가들 여인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자신의 상대가 책임을 분명히 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元帝는 呼韓邪單于의 긍정적인 의견을 청취한 뒤, 그의 의중을 헤아려 후궁 중에서 최고의 미인을 선택하여 그에게 출가시키고, 의전 상에 있어서 추호의 소홀함이 없이 극진하게 접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황후와 모연수 일파는 昭君이 하루라도 더 궁중에 머물면 조만간 큰 화근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그녀가 呼韓邪單于를 따라 빨리 흉노로 떠나면 당장 모든 후환을 제거할 수 있고, 또 황제의 마음을 단념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呼韓邪單于에게 昭君을 추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昭君은 황제가 후궁에서 呼韓邪單于를 위해 궁녀를 선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차피 황실에 계속 남아 있어도 반전의 기회가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흉노 출가가 하나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출가를 자청하게 되었다. 王昭君은 입궁한 후, 수년이 지나도록 황제를 만날 수조차 없자 가슴에 원망과 슬픔이 쌓여 掖庭舍에게 출행을 청하였던 것이다. 만일 계속 황제를 만날 수 없다면 후궁에 갇혀 늙어 죽는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흉노에게 출가하여 單于의 闕氏가 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후궁 중에서 최고의 姿色에 황후의 추천까지 받은 昭君은 무난하게 선발대회를 통과하였지만, 그녀를 처음 목격한 元帝는 낮이 나갈 지경이었을 것이다. 元帝는 왜 자신이 이런 미녀를 진즉에 볼 수 없었는지 매우 의아스러웠지만, 이미 呼韓邪單于의 면전에서 昭君 출가를 허락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말을 반복할 수 있

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元帝는 눈앞에서 절세미인을 呼韓邪單于에게 빼앗기고, 그녀를 흉노로 출가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자초지종을 파악한 元帝가 대노하여 昭君의 용모를 고의적으로 추하게 그려 자신을 농단한 畫工 모연수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런 정치적 권력이 없는 나약한 화공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上述한바와 같이 황후와 畫工 모연수의 음모에 의해 더 이상 퇴로가 없다고 판단한 昭君은 불만을 삭이지 못하고 직접 흉노 출가를 자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대단히 전기적 성향이 농후한 昭君 출가 고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昭君 출가의 배경을 밝혀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비전통적인 견해에 근거한 昭君의 出稼 배경과 관련된 견해는 나름대로 상당한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황후의 개입에 의하여 이러한 사건이 조작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충분하다. 그리고 昭君이 呼韓邪單于를 따라 흉노로 출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元帝가 병사하고, 황후인 王政君을 비롯한 외척이 국정을 농단하고, 王政君이 宣帝와 哀帝 시기까지 황태후와 태황태후로서 약 61년을 섭정하였다. 심지어 당시 元帝가 병약하여 국정에 깊이 간여하지 못하고, 외척들이 발호한 사실로 미루어 황후의 암묵적인 동조 하에 畫工이 昭君의 肖像 毀畫 과정에 깊이 간여하였을 것이다.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한 황후의 입장에서 昭君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궁녀에 불과한 昭君이 결국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기원 전 33년, 昭君은 元帝의 양녀로 입적되고 漢나라의 永安공주로 책봉되어 呼韓邪單于에게 출가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呼韓邪單于를 따라 변경을 넘고 “漠北”의 흉노에 도달하여 “寧胡閼氏”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 4. 맺는 말

昭君에 대한 평가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漢書》에 나타난 昭君의 출가는 주로 제왕적 관점에서 單于의 服屬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下賜된 가련한 여인상으로 그려졌다면, 《後漢書》는 《漢書》의 下賜설에 昭君의 자원설이 가미되어 의지가 곧고, 담대한 여인상으로 묘사되었다.

昭君의 흉노 출가에 대한 평가는 어떤 한 단면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야 만 昭君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史書의 昭君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제왕과 권력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昭君 흉노 출가는 대부분 피동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피동적인 昭君 묘사에서 벗어나 昭君 입장과 漢과 匈奴의 대등한역사적 관점에서 흉노 출가를 재해석해야 만 昭君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漢 고조 이후, 시작된 공주 和親 제도는 元帝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었다. 고조에서 무제 통치 시기는 양 민족이 모두 패권을 추구하는 漢强匈强의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漢은 무제시기 잠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흉노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부득이 공주 和親 정책을 취하였지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종실의 여인을 공주로 책봉하여 單于에게 출가시키는 편법적인 和親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元帝 통치 시기는 漢强匈弱의 시기로 바뀌어 呼韓邪單于가 황제를 알현하여 사위가 되기를 자청하였기 때문에 이에 고무된 元帝가 昭君을 흔쾌하게 하사한 것으로 모든 史書가 기록하고 있다. 원래는 이전과 같이 자신의 공주를 單于의 闕氏로 출가시키려고 계획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다른 방도를 강구하던 중에 복속을 청한 呼韓邪單于가 스스로 사위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가 이전처럼 황실의 공주를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후궁 중에서 천자의 명만 대기 중이던 순수한 평민 출신의 궁녀인 昭君이 掖庭令에게 자신이 呼韓邪單于에게

출가하기를 자원했기 때문에 昭君이 결국 單于의 閼氏가 되었던 것이다.

和親이란 본래 전쟁을 벌이는 당사국 간에 다툼 없이 사이좋게 지내기로 하는 강화조약이다. 元帝 시기의 漢匈 관계는 흉노의 국력이 극도로 쇠퇴하여 和親에 의한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없는 정치적 상황이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元帝 시기의 漢強匈弱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昭君 출가 이후, 漢匈 간에 약 50년 이상의 평화우호 상태를 가져 온 것이지, 반드시 昭君 출가로 인하여 漢匈 간에 평화우호의 국면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昭君의 흉노 출가로 인해 기존에 漢匈 간에 달성된 화해의 토대위에서 상호 신뢰와 화합을 증진하고 평화우호 관계를 공고하게 수행한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권력자의 사욕 때문에 昭君이 공주 대신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지만, 그녀가 이를 단순한 보복 차원의 선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흉노 單于의 閼氏가 되고자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는 昭君이 呼韓邪單于가 비록 흉노의 수장이라는 하지만, 그가 예의와 인품을 갖춘 인물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평생 元帝의 총애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單于의 閼氏가 되어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로 마음먹고 출가를 결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史書에서는 모두 下賜설을 크게 강조하여 元帝가 주도적으로 이민족의 수장에게 큰 은덕을 베푼 것을 중심으로 기록한데 반해, 비전통적 견해의 관점에서는 昭君과 呼韓邪單于가 직접 사건의 중심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아마도 昭君과 呼韓邪單于를 신뢰하고 추앙하는 양민족들의 정서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둘째, 昭君이 良家の 출신, 즉 청빈한 농부의 자제라는 점이 그녀의 곧은 성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특히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위유내강의 신념을 갖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순박하고 자유로운 성격 때문에 昭君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울골은 성격 때문에 그녀는 모연수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황후의 음모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呼韓邪單于를 따라 흉노로 가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자고로 妃嬪과 궁녀들이 거주하는 六宮을 관장하는 소임은 황후에게 있는 것이다. 질투심이 많은 황후에게 있어 눈에 띄는 화려한 후궁의 여인은 일단 경계의 대상이다. 황후로서는 이런 미인들이 황제의 총애를 얻는 것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하여 각종 음모를 동원하려 들었을 것이다. 이런 황후의 음모와 화공의 탐욕이 결탁하여 昭君의 肖像을 고의적으로 毀畫시켰으며, 결국 희망이 없음을 간파한 昭君은 자진하여 呼韓邪單于의 闕氏가 되기를 결단하였다. 그녀가 목전의 사사로 운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大局을 위한 선택과 결단을 하였기에 漢과 흉노 두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追尊되었다.

당시 昭君의 흉노 출가 과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漢과 흉노 민족에게 있어, 그녀는 두 민족의 마음속에 각인된 민족 화합과 단결의 상징적 존재이다. 원래는 후궁의 추잡한 음모에 의해 자행된 비극적인 고사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昭君의 과감한 선택과 결단에 따라 전혀 다른 불후의 傳奇적 고사로 변모된 것이다. 비극적인 고사의 가련한 여인에서 두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昭君에게 있어서는 행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두 민족의 행운이기도 하다. 만일 당시 昭君이 황제의 후궁이 되어 황실에 남고, 그리고 진짜 공주가 흉노로 출가했다면, 흉노에 정착한 후에 아마 전혀 예상치 못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공주가 수시로 單于에게 흉노의 생활에 대해 계속 시비하거나 불만을 표출했다면 漢과 흉노의 관계가 더욱 경직되거나 악화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호강 속에 자란 공주가 흉노의 거친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자칫 일찍 죽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漢과 흉노 간의 평화적인 관계는 보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昭君의 흉노 출가는 그녀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든, 혹은 자의에 의한 것이든, 강요에 의한 것이든 呼韓邪單于와 결혼 후, 비교적 원만한 생활을 누리고, 單于의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점차 흉노인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그래서 呼韓邪單于是 昭君을 흉노 각 부족의 여자 수령으로 추대하였고, 呼韓邪單于의 황후에 해당하는 闕氏, 즉 寧胡闕氏로 책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昭君은 점차 元帝에 대한 불만

과 원망에서 벗어나 漢과 흉노간의 평화우호와 흉노인 들의 생활 개선을 위하여 유익한 일들을 많이 수행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수행하는 시종들에게 독서와 시문을 지도하고, 비파 연주를 비롯한 중원의 문화를 전수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처럼 昭君의 흉노에 대한 혁혁한 공로와 흉노인 들을 궁핍히 여기는 어진 품성으로 인하여 그녀는 흉노인 들의 심중에서 점차 神格化된 偶像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현재 내몽고의 呼和浩特市의 남쪽 교외에 昭君의 분묘인 青冢이 있고, 그밖에도 包頭 부근에 약 7~8개의 昭君 분묘가 있다. 이것은 昭君의 서거 이후에 각 부족의 수령이 된 그녀의 후손들이 漢과 흉노인 들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는 모친의 업적을 기리고, 漢匈 간의 평화우호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조성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參考文獻〉

- 司馬遷《史記》上海古籍出版社 1987.  
 班固《前漢書》上海古籍出版社 1987.  
 范曄《後漢書》上海古籍出版社 1987.  
 葛洪《西京雜記》中華書局 1985.  
 張文德《王昭君故事傳承與嬗變》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潘長杰, 曹文清, 〈淺談藝術陶瓷“四大美女”的鑒賞〉, 江蘇陶瓷 第45卷, 第3期, 2012.  
 丁志祥, 〈趣讀中國古代四大美女與花卉〉, 南方農業 第3卷, 第10期, 2009.  
 王燕, 雷艷, 嚴珍珍, 〈貂蟬: 儒家思想的殉道者—從貂蟬形象的塑造管窺《三國演義》的儒家思想印記〉, 十堰職業技術學院學報 第25卷, 第1期, 2012.  
 韓曉露, 《經典的美麗: 四大美女和呂燕》.  
 曹國寧, 〈試論和親公主的外交使臣作用〉, 甘肅高師學報 第17卷, 第3期, 2012.  
 王作良, 〈《琴操》與昭君題材的文學化進程〉, 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29期, 第4期, 2007.  
 馬冀, 〈論昭君文化的精神價值〉, 湖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6卷, 第6期, 2008.  
 張怡平, 〈王昭君與漢朝的和親政策〉, 綏化師專學報 第24卷, 第2期, 2004.

- 秦興友,〈以歷史的視角看昭君和親〉,三峽文化研究 第十輯。
- 黃強,〈王昭君和親史實辨誤〉,江蘇教育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期,1996。
- 林永仁,〈昭君和親的歷史功績〉,三峽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25卷,第3期,2003。
- 王宝琴,〈昭君形象的類型及其文化內涵〉,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 第44卷,第4期,2007。
- 王前程,王平,薛麗,麗王珮,〈昭君形象的多義性與昭君文化的民族特性(筆談)〉,三峽論壇 第4期,總第228期,2010。
- 王前程,〈昭君和親成功的主客觀原因及其啓示意義〉,三峽文化研究 第十輯。
- 陳育宁,〈論歷史上的和親〉,甘肅社會科學 第2期,1993。
- 劉戈,郭平梁,〈漢匈“和親”的本來面目是什麻?〉,河北學刊 第25卷,第5期,2005。
- 葛亮,〈誰說王昭君嫁匈奴單于是“和親”?〉,河北學刊 第24卷,第5期,2004。
- 楊逢泰,〈略論昭君題材作品主題的嬗變〉,河南師範大學學報,第22卷,第2期,1995。
- 錢國蓮,王廷偉〈女性主義視野中中國古代四大美女形象的再解讀〉,浙江工業大學學報 第5卷,第2期,2006。
- 張海丹,〈王政君新論〉,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社科版),2013。

### 〈中文提要〉

王昭君故事是在中国两千年来家喻户晓的民间故事。王昭君匈奴出嫁的故事,最早见于《前汉书》里的《元帝纪》和《匈奴传》。《前汉书》里的记事太简约而缺乏全貌,只不过很强调汉元帝把王昭君馈赠呼韩邪单于。但是,记载较详,而昭君有更多渲染和同情,并使昭君成为悲剧性人物的,是《后汉书》里的《南匈奴传》。更值得注意的是昭君“乃请扼庭令求行匈奴”。自动请求赴匈奴出嫁,这一大胆并带有主动意味的举措,显得昭君是一个清高和刚烈的抗争性人物。

后来,《西京杂记》里的昭君形象比史书大幅度变化,从此王昭君事迹由史实步入了文学殿堂。其中,《西京杂记》所载“昭君与画工”的故事,他故意把昭君的容面画得很丑,所以这个故事渐渐富于传奇性和丰厚的文化底蕴。但是我认为毁画不是他一个人计划的,一定是皇后很怕天生的佳丽昭君受到元帝的临幸,所以他背后策划画工毁画的过程。

当初,昭君选择匈奴出嫁是不可避免的一种宿命性的命运,但是她没有退路的情况下,很大胆地很主动地要求匈奴出嫁。她在匈奴很积极照顾老百姓,很努力改善他们落后的生活条件。由于她的崇高的牺牲精神,汉匈的老百姓很崇敬她,很支持她。昭君的匈奴出嫁起到了增

进信任、加强和巩固汉匈间存在的和平友好的历史作用。

關鍵詞: 王昭君, 元帝, 匈奴出嫁, 呼韓邪單于, 皇后, 畫工毀畫, 平和友好

이 논문은 2014년 7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8월 1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